

첫 가을야구 동점 3점포... 역시 오타니

NLDS 1차전에서 맹활약
2회 홈런 뽑으며 승리 견인
다저스, 샌디에이고 7-5 제압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동점 3점포를 쏘아 올린 오타니 쇼헤이의 활약 속에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1차전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역전승을 거뒀다.

다저스는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NLDS 1차전 샌디에이고와의 홈경기에서 7-5로 승리했다.

백리그 입성 7시즌 만에 처음 MLB 포스트시즌을 치른 오타니는 이날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NL 승률 전체 1위로 NLDS에 직행한 다저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꺾고 올라온 샌디에이고를 누르고, 5전3승제의 NLDS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다저스는 1회 초에 매니 마차도에게 투런포를 맞는 등 3점을 먼저 허용했다.

오타니가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다.

다저스가 0-3으로 뒤진 2회 말 2사 1, 2루에서 오타니는 샌디에이고 선발 딜런 시즈의 시속 156km 높은 직구를 받아쳐 오른 쪽 담을 넘겼다.

타구는 시속 180km로, 113m를 날아갔다.

동점 홈런을 친 오타니는 포효하며 그라운드를 돌았다.

샌디에이고는 3회 초 2사 1, 2루에서 터진 산더르 보하르츠의 좌익수 쪽 2타점 2루타로 다시 앞섰다.

하지만, 다저스가 4회 말 3점을 뽑으며 승부를 뒤집었다.

1사 후 토미 에드먼, 미겔 로하스, 오타니의 연속 안타로 만루 기회를 잡은 다저스는 상대 불펜 에이드리언 모레혼의 폭투로 1점을 얻고, 이어진 2사 만루에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중전 적시타로 2점을 보태 6-5로 역전했다.

5회 무사 1, 3루에서는 에드먼의 병살타 때 1점을 추가했다.

다저스 선발 아마모토 요시노부는 3이닝



다저스 오타니가 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NLDS 1차전, 2회 말 3점 홈런을 친 뒤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5피안타 5실점으로 고전했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얻어 패전을 면했다.

뉴욕 양키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뉴욕 메츠도 디비전시리즈 1차전에서 승리했다.

양키스는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벌인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1차전

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6-5로 눌렀다.

역전과 재역전이 이어지는 혈전에서 양키스는 7회 말에 터진 알렉스 버두고의 결승타로 승자가 됐다. 5-5로 맞선 7회 말 양키스는 제츠 치점의 좌전 안타에 이은 도루로 얻은 2사 2루에서 버두고가 좌전 적시타를 쳐 결승점을 뽑았다.

선취점을 내준 양키스는 3회 말 무사 1루에서 터진 글레이버 토레스의 우월 투런포로 역전했다.

캔자스시티는 4회 초 무사 1루, M.J. 메렌데스의 우중월 투런포로 다시 앞섰지만, 5회 말 만루에서 밀어내기 불넷으로 2점을 내줬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맨시티·리버풀·아스널 치열한 EPL 선두 경쟁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초반부터 선두 경쟁이 치열하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비롯해 리버풀, 아스널 모두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5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EPL 7라운드 홈 경기에서 풀럼을 3-2로 꺾었다.

전반 26분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에게 선제골을 내준 맨시티는 마테오 코바치치가 전반 32분과 후반 2분, 제레미 도쿠가 후반 37분 연속골을 터뜨려 3-1로 전황을 뒤집었다.

풀럼의 호드리구 무니스가 후반 43분 한 골을 만회했으나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핵심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부상으로 이탈한 맨시티로서는 로드리의 자리인 3선 미드필더로 출격해 멀티골을 폭발한 코바치치의 맹활약 덕에 기분 좋게 승점 3을 챙겼다.

EPL 역사상 최초로 5연패를 노리는 맨시티(17골 8실점)는 이날 승리로 개막 후 7경기에서 5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 17을 쌓았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도 2위로, 선두 탈환에는 실패했다. 7경기에서 6승을 챙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긴 리버풀(1패-승점 18)이 선두를 지켰다.

아르네 슛트 신임 감독 체제로 새 시즌을 맞은 리버풀은 크리스털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키오프 9분 만에 나온 디오구 조타의 선제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이겼다.

리버풀은 EPL,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를 포함해 올 시즌 치른 10차례 공식전에서 9번 승리했다. 지난달 중순 노팅엄 포리스트와 리그 홈 경기에서 0-1로 일격을 당한 게 유일한 패배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지휘하는 아스널도 이번 라운드 홈 경기에서 사우샘프턴을 3-1로 꺾고 개막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피겨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 은메달

피겨 간판 신지아(세화여고·사진)가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아는 6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4.21점, 예술점수(PCS) 59.59점을 합쳐 123.80점을 받았다. 신지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69.24점을 합쳐 최종 총점 193.04점을 기록, 1위 소피 펠텐(197.41점·미국)에 이은 2위에 올랐다. 올해 초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총점 212.43점으로 은메달을 땀던 신지아는 올 시즌 부진했다. 그랑프리 3차 대회에서는 4위에 그쳐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고, 이

번 6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신지아는 상위 6명이 출전하는 왕중왕전격 대회인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1~6차 대회까지 마친 상황에서 4위에 올라 있는데 마지막 7차 대회에서 경쟁자들의 결과에 따라 최종 6위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이크다. 신지아는 이날 첫 번째 점프 트리플 루프, 두 번째 점프 트리플 살코를 모두 클린 처리했다.



Back Bounce Sole

BB WEDGE

Designed by TOMARU

RC ROYAL COLLECTION

‘솔의 홈에는 이유가 있다’

클럽 장인 카즈히로는 어프로치에서 뒷땅치는 골퍼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솔에 6mm의 홈을 넣음으로써 뺄짐이 바뀌었다.

Back Bounce Sole, 로얄컬렉션의 'BB웨지'라면

뒷땅에도 솔이 빠져 스핀 효과가 있는 어프로치를 칠 수 있다.

프로, 아마추어 불문하고 사용자 급중 중!

www.royalcollectiongolf.co.kr